

# 재일조선여성의 ‘마이너 필링스’와 대명사화된 ‘어머니’

: 재일조선여성 1세들의 문해교육과 글쓰기

신지영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목차

- 1 재일조선여성의 ‘마이너 필링스’와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
- 2 ‘욕망하기를 원할 욕망’의 획득: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의  
생애사적 패턴
  - 2.1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의 특성과 마이너 필링스의 극복
  - 2.2 생애사적 서술 패턴과 복합차별의 인식
- 3 대명사화된 ‘어머니/オモニ’의 양가적 의미
  - 3.1 대명사화된 호칭, ‘어머니/オモニ’
  - 3.2 ‘어머니/オモニ’의 양가적 의미: 규범화된 인정욕망  
vs. 새로운 공통장의 발명
- 4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의 성찰성: 피해와 가해 사이에서

본 논문은 재일조선여성 1세들이 문해교육 과정에서 쓴 글 및 문해교육 경험을 소재로 하여 쓴 글을 통해, 재일조선여성들이 식민주의와 가부장제 안에서 몸에 새길 수밖에 없었던 ‘마이너 필링스(minor feelings)’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녀들을 마이너 필링스에 빠지게 만드는 관계를 벗어나 다른 ‘공통성들(communs)’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재일조선여성들의 수기, 일기, 작문 등을 모아 놓은 방대한 자료집인 『在日朝鮮女性作品集: 一九四五~八四. 1~2』 중 재일조선여성 1세가 문해교육을 받고 글을 쓰는 과정이 나타난 수기, 일기, 에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글들을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라고 개념화한다. 재일조선여성들이 글과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이 그녀들을 둘러싼 중층적 관계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마이너 필링스’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미묘한 인종주의적 폭력인 ‘마이크로 어그레션(Microaggression)’에 의해 심화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재일조선여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본다.

첫째로 재일조선여성들이 문해능력을 획득하고 글쓰기를 욕망하게 되는 과정을, 문해교육 경험을 담은 글이 ‘생애사적 글쓰기’의 특징을 지녔다는 점과 관련시킨다. 이 생애사적 글쓰기의 특질을 통해, 어떻게 여성들이 ‘마이너 필링스(자기비하, 자기혐오, 수치심, 수동성)’에서 벗어나 글쓰기를 욕망하는 주체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로, 문해교육과 글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가적 욕망—1)기존 가부장제적 관계 속에서 인정받으려는 욕망, 2)여성들 사이의 새로운 자율적 공통장을 만들려는 욕망—사이의 다이나믹한 갈등을 포착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라는 호칭이 어떻게 재일조선여성들의 다층적인 위치와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새롭게 맥락화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처럼 본 논문은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를 기반으로, ‘마이너 필링스’와 ‘마이크로 어그레션’에 취약한 두 가지 위치인 ‘유색인종’과 ‘유민여성’을 연결시켜 보기 위한 시론적 작업이다. 이를 통해 ‘한국/한국인/한국여성’이라는 위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마이너 필링스’을 통해 지속되는 복합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성들의 공통장을 모색하려고 한다.

국문핵심어: 재일조선여성, 유색인종 유민 여성, 마이크로어그레션, 마이너 필링스, 문해교육,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 인종주의, 복합차별, 혐오, 생애사적 글쓰기, 공통성

## 1 재일조선여성의 ‘마이너 필링스’와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

식민지기 피식민자의 감정에 대한 연구는 식민주의 관리 통제 시스템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축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민자들은 피식민자인 조선인들이 “뒤틀려 있고” “무기력”하다고 규정짓는다.<sup>1</sup> 그러나 피식민자의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이 왜 발생하는가를 묻지 않고, 그것을 조선인의 특성으로 규정지어 버리는 담론 그 자체가 식민화된 인종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비뚤어져 보이는 조선인의 태도나 식민화된 감정은 제국주의 동원에 포섭되지 않는 저항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sup>2</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식민화된 감정은 피식민자에게 내면화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식민화된 감정이 내부로 향할 때, 식민자에게 차별당하면서도 그 위계화된 관계를 내면화하여 다시금 (구)피식민자 집단 내부의 ‘타자’들을 배제할 수도 있다. 또한 식민화된 감정이 자기자신에게로 향할 때, 스스로를 저항할 수도 권리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규정해버릴 수도 있다.

식민화된 감정이 피식민자에게 내면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에 거주하면서 인종과 젠더의 복합차별을 겪는 재일조선여성에게 피식민화된 감정이 어떻게

- 
- 1 장혁주는 「조선 지식인에게 호소함(朝鮮の知識人に訴ふ)」, 『文藝』, 改造社, 1939.2에서 일본인들이나 자신이 보기에 조선인은 “뒤틀려 있다”, “질투심이 많다”고 규정짓는다. 또한 좌담회 「반도학생의 제문제를 말한다(半島學生の諸問題を語る)」, 『國民文學』, 1942.5.6 합병호에서 조선인 학생들의 태도가 무기력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 인용된 일본어 원문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은 필자에 의함. 이하 동일.)
  - 2 申知瑛, 『コロニアルインカウンタ』, 勁草書房(近刊). 본론 1장에서 대만과 조선의 문학자들 사이의 연결을 그들이 공유하는 ‘부정적인 식민지적 감정-초조, 질투, 부끄러움, 불편함 등’을 통해 분석했다.

지속·심화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재일조선여성 1세의 문해교육과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 점을 사유하기 위한 것이다. 식민주의 통치에 의해 심화되어 온 인종주의, 그 속에서 다시금 가부장제, 자본주의 등 복합적인 차별을 받아 외부로부터도 또한 스스로도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어 온 재일조선여성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글쓰기를 욕망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 욕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공통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재일조선여성 1세들은, 스스로도 또한 주변으로부터도, 문해능력을 갖춘 글쓰기의 주체로 여겨지지 못했다. 문해능력과 글쓰기를 욕망하기 이전에, ‘피식민자’이며 ‘유민’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과 글쓰기를 욕망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녀들은 여러 차원에서 ‘욕망하기를 원할 욕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 놓인다. ‘욕망하기를 원할 욕망’을 갖지 못한 상태란,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난민 상태와 유사하지만<sup>3</sup>, 이를 재일조선여성의 생물학적이고 계급적이고 구조적이고 인지적 위치에서 경험되어 온 정동(affect)의 작동을 반영하여 재규정한 것이다.

욕망하기를 원할 욕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이 문장에서 앞의 ‘욕망하기’란 의지와 감정을 지닌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것이라면, 뒤의 밑줄 친 ‘욕망’은 그 모든 존재가 지닌 감정과 지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가능해진다. 그러한 관계가 주어지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억압될 때, ‘에이 나 따위가 뭘…….’과 같은 자기비하, 자기혐오, 부끄러움, 수동성 등 ‘마이너 필링스(minor feelings)―계급적으로는 마이너리티의, 정동의 벡터로서는 부정적인, 정서적으로는 단조적인’—가 내면화된다. 여성들의 욕망은 정해지고 허락된 범위의 공동체(일반적으로는 가정) 안의 ‘인정욕망’으로 회수되고, 그 감정을 예민하게 들여다보거나 복합적인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욕망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3 스테파니 데구이어, 김승진 역, 『권리들을 가질 ‘권리’』, 『권리를 가질 권리』, 위즈덤하우스, 2019, 23쪽, 34-37쪽. 이 말에서 복수형인 ‘권리들’이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뒤의 ‘권리’란 법적 제도적 공동체에 속한 존재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난민’은 이 뒷부분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관계가 박탈된 상태를 의미한다.

식민지기 피식민자들의 감정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소 존재하지만, 복합적 차별을 겪는 유민 여성의 감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캐시 박 홍이 미국의 인종차별로 인해 미국에 이주한 ‘아시아 여성’이 내면화하게 된 감정들을 “마이너 필링스(minor feelings)”라고 지칭한 것은 재일조선여성의 감정상태를 사유할 때에도 참고가 된다.<sup>4</sup> 캐시 박 홍은 ‘마이너 필링스’란 자신이 “인식하는 현실이 끊임없이 의심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자극받아 생긴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따라서 보기에 안 좋은 일련의 인종화된 감정”으로, “어떤 모욕을 듣고 그게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뻔히 알겠는데도 그건 전부 너의 망상일 뿐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발동한다고 쓴다. 또한 이러한 감정은 “중대한 변화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결여에 의해, 특히 변하지 않는 구조적 인종주의와 경제상황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이러한 감정을 다루는 문장은 “인종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체제의 트라우마가 개인을 제자리에 묶어 두는 현상을 탐구”한다고 쓰고 있다.<sup>5</sup>

그러나,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엘리트 여성인 캐시 박 홍의 경험과, 식민주의를 겪고 해방 후 일본에서 계급적 인종적 젠더적으로 차별받아 온 문맹의 재일조선여성 1세의 경험을 바로 연결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이너 필링스’로부터 개념적 힌트를 얻지만, 캐시 박 홍의 정의나 예시를 그대로 재일조선여성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캐시 박 홍의 ‘마이너 필링스’에 대한 논의는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면서 전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종과 젠더에 대한 인식은 예민하게 비판되고 있는 반면, 주로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 아시아인(여성)을 초점화하고 있기 때문에 ‘유민 여성’의 계급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충분치 않다. 또한 주로 코리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시아인 유민 여성이 겪어 온 역사적 경험(식민주의, 유민화, 기민화)에 대한 인식도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캐시 박 홍의 ‘마이너 필링스’란 용어가 지닌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재규정하면서,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재일조선여성에 대한

4 캐시 박 홍, 노시내 역, 『마이너 필링스』, 마티, 2021, 84쪽.

5 위의 책, 84-85쪽.

‘마이크로 어그레션’과 연결시킨다. 즉 재일조선여성 1세들이 스스로 글을 배우고 글쓰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도록 만들고, 문맹인 상태에 대한 자기비하와 부끄러움을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그녀들을 수동적인 자리에 묶어 두었던 식민주의, 인종주의,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복합차별의 역사적 경험과 함께, 그러한 복합차별이 현재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재일조선여성 1세의 문해교육을 소재로 한 글에는 식민주의와 가부장제 안에서 몸에 새길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마이너 필링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성들 사이의 어떠한 계기·관계·조건이 필요한가를 사유할 수 있는 단초가 나타나 있다.

구체적인 텍스트로는 송혜원이 만든 자료집 『在日朝鮮女性作品集：一九四五~八四. 1』 및 『在日朝鮮女性作品集：一九四五~八四. 2』<sup>6</sup>을 기반으로 재일조선여성 1세가 문해교육을 받고 글을 쓰는 과정이 나타난 수기, 일기, 에세이를 분석한다. 자료집에 수록된 신문 잡지에 게재된 글과 문집 중에서도 『조선신보(朝鮮新報)』, 『새로운 조선(新しい朝鮮)』(2호, 1954년 2월), 『어머니들의 문집(オモ二たちの文集)』(2호, 1984년), 『文字をつかむ』(2호, 1979년 3월)에 실린 텍스트가 주된 분석 대상이다. 이때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로 재일조선여성들이 문해능력을 획득하고 글쓰기를 욕망하게 되는 과정을, 문해교육의 경험을 서술한 글에 나타난 생애사적 특징과 관련시킨다. 이를 통해, 어떻게 여성들이 일상화된 마이크로 어그레션 속에서 내면화한 ‘마이너 필링스(자기비하, 자기혐오, 수치심, 수동성)’에서 벗어나 문해교육과 글쓰기를 어떻게 욕망할 수 있게 되는가를 살펴본다. 둘째로, 문해교육과 글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가적 욕망—기존의 가부장제적 가치에 따라 인정받으려는 욕망, 여성들 사이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공통장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사이의 다이내미즘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어머니’라는 호칭이 가부장제 속의 어머니의 의미에서 탈피하여, 여성들 사이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반영한 호칭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단지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텍스트가 생성된 공론장과 조직의 활동에 대해

6 宋惠媛 편저, 『在日朝鮮女性作品集：一九四五~八四. 1』 및 『在日朝鮮女性作品集：一九四五~八四. 2』, 綠蔭書房, 2014.

서는 지면상 자세히 다루지 못했고 추후의 과제로 삼으려 한다.<sup>7</sup> 또한 주로 재일 조선여성 1세의 문해교육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작문을 주로 다루지만, 반드시 재일조선여성 1세의 글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송혜원이 『在日朝鮮女性作品集』 해설에서도 썼듯이 재일조선여성의 경험은 기존의 역사적 연대기로 정리하기 어렵다. 여성들의 글쓰기는 거대한 역사과정에 따라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글을 배우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전개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글을 배우는 것은 재일조선인 단체의 정치적 상황이나 일본 사회의 변화와 연동하지만, 그 계기는 천차만별이며, 글을 배우고 글쓰기를 시작하는 시기는 가정환경(가사, 육아, 경제적 형편, 가족의 이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재일조선여성의 연령대만을 초점화하여 시기를 체계화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이러한 제약을 오히려 긍정적 계기로 삼아, 재일조선여성의 글 속에서 만들어지게 된 또 하나의 연대기를 부각시키려고 한다. 즉 거대 역사의 시간에 재일조선여성의 시간을 끼워넣는 것이 아니라, 재일조선여성의 경험 속에 기존 역사가 어떻게 변형되어 기입되어 있는가를 통해 새로운 연대기를 상상하려고 한다.

이처럼 본 논문은 일상적 마이크로 어그레션 등의 복합차별을 겪는 재일조선여성이 어떻게 내면화된 ‘마이너 필링스’에서 벗어나 글쓰기에 대한 욕망과 여성들 사이의 해방적 관계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는가를 문해교육의 경험이 나타난 글에 표현되어 있는 여성들 사이의 공감, 연결, 새로운 연대기를 통해 사유하고자 한다.

## 2 ‘욕망하기를 원할 욕망’의 획득: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의 생애사적 패턴

### 2.1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의 특성과 마이너 필링스의 극복

일반적으로 재일조선여성의 일기, 수기, 에세이 등은 ‘에고 다큐먼트(ego docu-

---

7 각 잡지 및 문집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자료집 속 문해교육과 관련된 텍스트로 한정한다. 서술하지 못한 구체적인 배경들은 송혜원과 함께 준비 중인 재일조선여성의 글에 대한 선집 출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ment)',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자기서사'의 한 형식으로 불러 왔다. 그러나 재일 조선여성의 문해교육을 둘러싼 글들은 개인적 글쓰기라기보단 중층적인 관계 속에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자기서사'이면서도 집단적 성격을 띤다. 필자는 재일조선여성들의 글쓰기는 그 글이 생산·출판·유통될 수 있었던 공통장의 형성 및 활동과 그 어떤 텍스트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 (commons-place of self-epic)'라고 개념화한 바 있다.<sup>8</sup> 여기서는 생산·출판·유통과 관련된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재일조선여성들이 문해교육과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맺게 된 여성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 쓰는 '공통장'이라는 말은 출판물이 생산·출판·유통되는 제도적 기반인 '공론장'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텍스트 생산 주체들 상호 간의 공감과 연결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통장들/공공재들(communs)'의 형성이라는 의미를 띤다.

페데리치는 네그리와 하트의 '공통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하는데, 이때 공유재를 형성해 온 여성들 사이의 자본화되지 않은(자본화될 수 없는)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sup>9</sup>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재일조선여성들이 문해교육을 받으면서 쓴 글들을 '자기서사'이면서 동시에 공유재로서의 성격을 띤 텍스트로 인식한다. 이 글 속에는 재일조선여성이 스스로를 문해교육과 글쓰기를 욕망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해가는 과정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처럼 욕망이 변화하는 과정에 여성들 사이의 어떠한 공감과 연결이 있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녀들이 '마이너 필링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동력을 찾아보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은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의 성격을 공통성의 형성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공통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일조선인의 자기서사는 에고 다큐먼트(Ego-Document)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 에고 다큐먼트가 생산될 때, 그 생산 주체의 성격을 '개인'이

8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개념적 정의는 신지영, 「트랜스내셔널 여성문학의 공백」,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참조.

9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 역, 『혁명의 영점』, 갈무리, 2013, 237쪽.



아니라 재일조선여성들 사이의 공감과 관계와 같은 ‘공통성’을 통해 파악하고, 에고 다큐먼트의 특성과 패턴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에고 다큐먼트는 하세가와 다카히코가 페니 서머필드의 논의를 빌어 정의하듯이, 라이프 히스토리(Life History), 라이프 스토리(Life Story), 생활지(Life Writing), 개인 이야기(Personal Narratives), 개인의 증언(Personal Testimony)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료형태는 “서한, 편지, 일기, 여행기, 회상록, 자서전, 오랄 히스토리, 의료검진기록, 경찰조서, 법정심문, 스크랩북, 사진 앨범, 노래, 영화, 자화상, 낙서” 등을 폭넓게 다루며, “개인의 말이나 시점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연구자에 의해 활용되어 온 개념이다.<sup>10</sup> 그러나 에고 다큐먼트라는 형식에 무엇이 포함되는가라는 논의뿐 아니라, 에고 다큐먼트의 생산 주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점의 차이가 있다. 에고 다큐먼트라는 말은 1958년 네덜란드 역사가인 샤크 프레셔(Jacques Presser)가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는데, 이후 루돌프 데커에 의해 장르가 구체화되었고, 술체(Winfried Schulze)에 의해, “개인적인 편지나 일기, 꿈의 기록이나 자서전과 같은 자유 의지든, 아니면 다른 상황이든 간에, 인간이 그 자신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 모든 사료”라고 정의된다.<sup>11</sup>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자율적 개인”이라는 남성적 자아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고, 클라우디 아울브리히 등의 연구자들은 에고(ego)를 “자율적인 개인”이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구성된 개인”으로 정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층위의 에고 다큐먼트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sup>12</sup>

에고 다큐먼트 생산주체의 성격을 “관계론적으로 구성된 개인”으로 보는 시각은, 재일조선여성의 문해교육과 글쓰기 과정을 분석할 때에도 시사적이다. 재일조선여성이 문해교육의 경험을 쓴 글들에는 문해교육을 시행한 단체의 사상이나 언어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대부분의 글들이 생애사적 서술경향을 띠는 점이다. 그 생애사의 내용은 젠더화된 삶의 고통스런 일대기를 요약한 뒤 문해교육의 기쁨으로 끝을 맺는 패턴을 지닌다. 그 패턴이 작문

---

10 長谷川貴彦, 『エゴドキュメントの歴史学』, 岩波書店, 2020, 2-3頁.

11 長谷川貴彦, 前掲, 4頁.

12 長谷川貴彦, 前掲, 4-5頁.

과 같은 글쓰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재일조선여성의 문해교육에 대한 구술에서도 동형적으로 포착된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이러한 패턴은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가, 재일조선인 단체나 야학 등의 문해교육 및 작문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애사적 글이 된 것은 외부적으로 강제되었다기보다는 내재적인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즉 생애사적 패턴을 갖고 있다고 하여, 재일조선여성의 문해교육을 다룬 글이 정형화되었다거나 조직의 이데올로기만 반영한다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패턴들은 재일조선여성의 텍스트를 ‘쓰여진 글’이라는 협소한 물질성을 넘어서, ‘관계’ 속에서 ‘정동’적 효과로 성찰하게 하는 실마리가 된다. 재일조선여성이 문해교육과 글쓰기를 욕망할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위치 짓게 되는 과정, 처음으로 글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간 받아왔던 민족차별(인종차별), 젠더차별, 계급차별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과정 전체가, 그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들 사이의 공감과 연결을 통해 글 속에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재일조선여성들의 문해교육을 둘러싼 텍스트의 생산·출판·유통뿐 아니라, 글쓰기를 욕망하도록 한 공감과 연결을 포괄하여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라고 부르려고 한다.

둘째로,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를 공통성의 형성과정으로 읽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이러한 텍스트에 접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즉 재일조선여성 텍스트가 한국에 얼마나 번역되고 유통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르, 연구분과, 언어, 국가적 분류에서 여러 경계 위에 있는 재일조선인 문학 속에서도 재일조선여성의 수기, 일기, 작문, 에세이 등의 텍스트들은 특히 접하기 어렵다. 2010년대 들어와서 재일조선인 문학이 ‘일본문학’의 일부나 ‘동포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의 일부로 치부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재일조선인 문학의 독자적 역사성 속에서 풍부하게 번역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는 국민국가 비판 이후의 문학이 나아가갈 방향을 소수자 문학, 디아스포라 문학 속에서 찾고자 하는 시각 전환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전환은 아직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이나 서발턴 이론은 1990년대 중반부터 유

입되었지만, 이 논의의 직접적인 주체가었어야 할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늦었다. 이러한 늦은 도착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일본을 보면, K-페미니즘과 K-문학이란 신조어를 낳았을 정도로 한국여성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음에도,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설이나 재일조선여성 문학은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한일 양쪽에서 나타나는 재일조선여성이 쓴 텍스트의 공백은, 식민지배를 겪었고 식민지배를 행한 지역의 의식/무의식 반영하고 있다. 즉 이 공백은 식민주의의 피해를 협소한 민족간의 관계로 인식함으로써, 식민주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민족차별, 젠더차별, 계급차별이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슬한 복합 차별을 인식하지 못한, 역사적이고도 현재적인 문제다.<sup>13</sup>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라는 개념화는 재일조선여성의 문해교육과 글쓰기가 이뤄지던 당대뿐 아니라 현재의 공론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물론 2015년 이후부터 재일조선여성이 생산한 텍스트를 ‘공동성’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다. 대항적 아카이브로서의 증언·구술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와 연구서가 번역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 욕망·행위·관계에 주목한 연구로는 송연옥, 이한정, 서아귀의 연구, 그리고 재일조선여성들의 수기, 일기, 작문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송혜원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sup>14</sup> 또한 2015년 이후 한국에서는 재일조선여성들의 수기, 에세이 등도 번역 편집되어 출판되고 있다.<sup>15</sup>

13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신지영, 앞의 글, 2019 참조.

14 관련된 연구서로는 이한정, 「여성으로서의 생애와 역사」, 박광현·오테영 편저, 『재일조선인 자기서사의 문화지리』 1, 역락, 2018; 徐阿貴, 『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の形成』, 御茶の水書房, 2012, 한국어는 2019);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 岩波書店, 2014(한국어는 2019) 등이 있다. 또한 연구사에 대한 고찰은 다음에 자세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신지영, 「부 / 재의 언어로(가) 쓰다」, 『사이間SAI』 제27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9; 신지영, 앞의 글, 2019.

15 오문자·조영순, 최순애 역, 『봉선화, 재일한국인 여성들의 기억』, 선인, 2018 (일본어본은 新幹社, 2015); 미리내, 양지연 역, 『보통이 아닌 날들』, 사계절, 2019 (일본어본은 御茶の水書房, 2016).

여기서 검토할 자료집 『재일조선여성작품집1,2』<sup>16</sup>에 수록된 글들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쓰여진 신문과 잡지의 독자투고, 작문, 일기, 편지, 에세이, 소설, 시 등이며, 글을 쓴 사람들의 연령대도 10살 미만 소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다.<sup>17</sup> 두 권으로 이뤄진 자료집은 총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0개 장 중에서 문해에 대한 욕망과 문해교육 과정을 보여주는 글이 많이 모여 있는 1장, 문해교육을 생애사 속에서 되짚어보는 글이 많은 10장,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 나타난 8장을 중심으로 본다.

자료집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이 각 장이 재일조선여성이 속한 공동체를 층위 별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재일조선여성들의 글쓰기가 어떤 공동체를 배경으로 이뤄졌는지 짐작하게 된다. 1장 「문자의 세계로」와 10장 「산다」를 앞뒤로 하고, 2장은 재일민족조직, 3~4장은 학교, 5~6장은 고향(조국, 사회), 7~9장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쓰인 글이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각 공동체가 내적으로 분열한다는 점이다. 즉 재일민족조직은 총련과 민단으로 양분되며, 학교는 일본학교와 조선학교로, 고향은 진짜 고향과 조국(그것도 남 북)으로 분열되어 있다. 가족의 경우도 고통스런 삶에 대한 공감과 변화를 꿈꾸는 저항이 양가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분열은 민족차별(인종, 민족), 젠더차별, 계급차별(빈곤, 학력)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재일조선여성을 둘러싼 관계를 가시화하며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한다.

가장 친밀한 공간에서 여러 층위의 분열을 경험하며 복합차별을 받아 온 그녀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욕망할 수 없는 자’로 배제시키는 자기혐오와 부끄러움과 같은 ‘마이너 필링스’에서 벗어나 문해교육을 욕망할 엄두를 낼 수 있었을까? 또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공동체(재일민족조직, 학교, 고향·조국·사회, 가족) 안에서의 ‘인정욕망’을 벗어나, 어떻게 그녀들 사이의 새로운 공통장을 꿈꿀 수 있(었)을까?

16 宋惠媛, 『在日朝鮮女性作品集: 一九四五~八四. 1,2』(在日朝鮮人資料叢書9, 10), 綠蔭書房, 2014. 이 작품집에 실린 자료 대부분은 복간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서지사항(자료집1/쪽)’ 또는 ‘원문서지사항(자료집2/쪽)’. 또한 원문이 일본어가 주가 되는 텍스트의 경우 (원문은 일본어)라고 명기한다.

17 이한정, 앞의 글, 137쪽.

재일조선여성들의 문해교육과 관련된 텍스트들을 살펴보면, 민족차별, 젠더 차별, 계급차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문해능력과 글쓰기를 원할 수 있는 위치, 즉 ‘욕망을 원할 욕망’의 위치로부터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스스로를 배제시켜 버리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오생은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여자는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도 시켜 주지 않았다고 토로한다.<sup>18</sup> 그 밖에도 문해교육에서 배제되어 왔던 상황에 대한 언급은 다양한데, 이러한 젠더 차별을 담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발화에 노출되면서 재일조선여성들은 스스로가 공부나 글을 배울 위치에 있지 않다고 여기게 된다. 이것이 ‘마이크로 어그레션(Microaggression)’이 야기하는, 미묘하지만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마이너 핏링스’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 핏링스’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미묘해서 잘 포착되지 않는 형태의 인종화된 마이크로 어그레션(Microaggression)에 의해 심화된다. 마이크로 어그레션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유색인종에게 적대적, 모욕적, 부정적인 무시나 모욕을 일상적으로 가하는 말, 행동, 또는 환경상의 수치심을 의미한다.<sup>19</sup> 즉 미묘한 모욕, 무시하는 눈빛, 제스처, 말투 등으로, 이는 무의식적으로 전달되고 일반적으로는 악의가 없고 무해하다고 여겨지지만, 피해자의 심리와 영적인 에너지를 훼손하여 행동에 지장을 준다.<sup>20</sup>

김우자는 재일조선여성들의 모임인 「앞으로 여성 넷」에서 2004년부터 일시적으로 실시한 “재일조선인 여성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혐오 발언을 한 쪽에서는 잘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하는 일상적이고 희미한 차별을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란 개념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sup>21</sup> 마이

18 玄五生, 「글자를 재워서(字をおぼえて)」, 『어머니들의 문집(オモニたちの文集)』, 1984, 3頁. (자료집1/27쪽). (원고용지에 쓰여짐). (원문은 일본어).

19 Sue, D.W. et al, “Racial Microaggression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May-June 2007. p.271.

20 *ibid.*, p.273.

21 김우자, 「재일조선인 여성에 대한 일상적이고 미묘한 차별」, 『동방학지』 제191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0, 90쪽.

크로 어그레션은 미시적 폭력(microassaults), 미시적 모욕(microinsults), 미시적 무가치화(microinvalidations)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sup>22</sup> 김우자는 특히 ‘미시적 무가치화’에 주목한다. 미시적 무가치화는 “인종과 젠더, 성적 지향과 연관된 현실을 직접적이고 영큼하게 부정하므로 세 가지 미시적 공격 속에서 가장 데미지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up>23</sup> 예를 들면, “그런 일 신경 쓰지 마, 지나친 생각이다, 너무 민감하다”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sup>24</sup> 미시적 무가치화를 통해 작동하는 폭력에 대한 분석은, 역사적으로 복합차별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이 비가시화되어 있는 재일조선여성의 취약한 위치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Derald Sue는 마이크로 어그레션의 피해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sup>25</sup> 그것은 ‘마이너 필링스’를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첫째로, 생물학적인(biological) 피해로 혈압, 심장박동 같은 생리적인 현상이나 면역체계의 변화이다. 둘째로 인지적인(cognitiv) 피해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의력의 자원(attentional resources)을 필요로 하고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 셋째로 감정적인(emotional) 피해인데 분노, 화, 걱정, 의기소침, 절망 등을 유발한다. 넷째로, 행동적인(behavioral) 피해로, 여기서 벗어나려는 책략과 행동 반응(behavioral reactions)은 그 상황에 적응하거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Freeman와 Stewart는 Sue의 분류를 정리하면서, 인식론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체성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마이크로 어그레션을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즉 Freeman등의 설명은 재일조선여성들이 마이크로 어그레션에 의해 마이너 필링스를 내면화하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를 욕망을 원할 욕망의 위치에서 배제시키는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sup>26</sup>

22 Sue, D.W. et al, pp.274-275. 마이크로 어그레션의 세 형태가 278쪽에 표로 정리되어 있음. 이하 한 단락은 278쪽 내용을 정리했음.

23 김우자, 앞의 글, 104쪽.

24 위의 글, 104쪽.

25 Freeman Lauren and Jeanine Weekes Schroer eds., *Microaggressions and Philosophy*, Routledge, 2020, p.6 에서 재인용. 이 한 단락의 피해유형은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26 *ibid.*, p.13; Lawren Freeman and Heather Stewart, “Microaggressions in Clinical Medicine,”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Vol. 28 Number 4, Johns Hopkins

재일조선여성들이 스스로를 욕망의 자리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발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조옥금은 “나 같은 게 배우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며,<sup>27</sup> 문옥체도 “글 배우기란 꿈에서 밖에 생각 못 하던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글을 배우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라고 하며,<sup>28</sup> 김정순은 총련 여성지부가 문해교육을 권해도 “이제 나이 50에 공부하면 무엇 하겠소”하고 거절한다.<sup>29</sup> 문해교육을 욕망할 권리 자체로부터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이 상태에는, ‘나 같은 게 뭘...’이라는 자기비하와 자기 혐오와 수동적인 상황이 나타나 있다. 인종차별과 젠더차별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여겨져 온 존재들의 마이너 필링스 말이다.

이처럼 ‘주체’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배제시켜 놓는 자기비하, 자기 혐오, 수동적인 상태, 즉 욕망하기를 원할 욕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녀들은 어떻게 문해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까? 김정순은 문해교육을 원하는 여맹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손님이 온다”거나 “어디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며 피하지만, “모두 다 이렇게 걱정을 하여 권하여 주는데 너무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 끝에 한글 공부부를 시작한다.<sup>30</sup> 보다 전형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예이다.

‘엄마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 나는 이 소리에 앓 했다. (...) 나는 답할 수 없는 자신에게, 몸이 움츠러드는 듯한 당혹감과 부끄럼에 휩싸였다. (...) 남편에게조차도 뭔가 바보취급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사실 있다. 그럴 때, 아내인 자

---

University Press, December 2018, pp.411-449에서 재인용.

27 趙玉金, 「야간 중학교에서 배워서(夜間中學に學んで)」, 『어른 중학생(おとなの中学生)』, 1982, 71頁. (자료집/31). (원문은 일본어).

28 문옥체(총련 고꼬 다이토 지부 구루마사까 성인 학교 수강생), 「성인 학교에서 글을 배워 처음으로 쓴 작문: 밝고 맑은 세상은 꿈 같은 세상」, 『朝鮮新報』, 1964.12.5., 4쪽 (자료집1/13쪽)

29 김정순(總連 神奈川県 川崎 지부 群電前 성인 학교 수강생), 「수기:문맹에서 벗어난 기쁨」 『朝鮮新報』, 1965.4.29, 4쪽. (자료집1/15쪽).

30 위의 글, 4쪽.

신 만이 단지 혼자 남겨진 듯한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절절히 느꼈다<sup>31</sup>

과거형으로 쓰여진 이 글에서 여성들은 문해능력을 갖게 된 이후,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이름은’이라든가 ‘주소는’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된 기쁨을 토로한다.<sup>32</sup>

위의 인용들은 재일조선여성들이 일상화된 마이크로 어그레션의 충격으로 자기혐오와 부끄러움이 가중될 때에도, 그것을 인식하고 해결할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성들 사이의 공감의 있을 때, 내면화된 마이너 필링스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 2.2 생애사적 서술 패턴과 복합차별의 인식

재일조선여성의 문해능력을 획득한 기쁨을 쓴 글 중 많은 텍스트는 생애사적 서술 패턴을 보여준다. 아무리 짧은 작문일지라도 재일조선여성이 쓴 문해교육의 경험을 담은 글에서 반드시 생애 전체를 돌아보는 패턴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애사적 패턴은 재일조선여성이 마이크로 어그레션으로 내면화된 마이너 필링스를 극복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을까?

첫째로, 재일조선여성들은 문자 해독력을 획득한 기쁨을 계기로 자신의 생애를 거슬러 올라가 봄으로써, 왜 자신이 문해능력을 가질 수 없었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문옥체는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할 적마다 저는 지나 온 옛날을 생각하였습니다. 정처 없이 일본으로 건너온 우리 식구들이 험벗고 굶주리던 생활들을”이라고 글을 시작한다.<sup>33</sup> 문옥체는 문해교육을 받을 때마다 아홉 살 때부터 일본인 공장에서 일하며 정당한 월급을 받지 못해도 글을 몰라 따지지도 못

31 金鐘惠·高京子「체험기·르포르타주: 생활과 싸움의 기록: 우리들은 이렇게 문자를 배웠다(体験記・ルピルタージュ: 生活と闘いの記録: 私たちはこのようにして文字を習った)」, 『새로운 조선(新しい朝鮮)』2号, 1954.2, 20頁. (자료집1/3쪽). (원문은 일본어).

32 玄五生, 앞의 글, 3쪽. (자료집1/27쪽).

33 문옥체, 앞의 글, 4쪽. (자료집1/13쪽).



했던 힘든 생애를 떠올리는데, 그것이 문해교육 경험을 쓴 글에 반영되어 있다. 11살에 일본에 온 한정희는 학교에 다니고 싶었지만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생애를 떠올리고 글로 쓴다.<sup>34</sup> 여공이 되어서도 “숫자를 못 읽으니까 시계를 볼 수가 없어서, 날이 저물면 돌아가고, 밤이 가시면 공장에 가고, 급료를 받아도 얼마인지 알 수 없었”으나, 60살이 되어 혼자가 되자 “어머니 学校”를 알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입장을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마음이 뛰었”다고 쓴다.<sup>35</sup>

이처럼 재일조선여성의 문해교육 경험을 쓴 텍스트는 생애사적 패턴을 갖고 있으며, 이 내용 속에는 자신이 글자를 모르고 복합적 차별을 받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인식하는 계기들이 나타나 있다. 이 순간은 곧 일상적으로 재일조선여성을 글쓰기를 욕망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마이크로 어그레션과 그로 인해 심화된 마이너 필링스로부터 스스로를 치유하고 글쓰기를 욕망하는 주체가 되어가는 감정의 변이과정을 보여준다. 이 변이과정은 재일조선여성들이 민족차별, 젠더차별, 계급차별이 뒤섞인 복합차별의 원인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을 획득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둘째로, 복합차별의 경험이 나타나 있는 재일조선여성의 글에 대한 분석은, 비가시화된 차별양상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론을 새롭게 요청한다. 재일조선여성의 텍스트에서는, 민족차별과 계급차별에 대한 문제가 초점화될 때, 젠더차별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는 경향이 있다. 재일조선여성들이 문해교육을 통해 글쓰기를 하게 된 순간의 감격을 쓴 생애사적 글을 마이너 필링스로부터의 극복과정으로 독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가시화된 복합차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론이 요청된다. 김우자는 재일조선여성이 겪는 복합적 차별은, 바로 그 복합성 때문에 이중의 비가시화 상태에 놓인다고 분석한다. 즉 “인종·민족 차별을 문제화하면 성차별이 후경화”하고 “여성 차별을 문제화하려면 인종·민족에 대한 차별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sup>36</sup> 어떻게 하면 민족차별과 계급차별을 이야기하면서도 젠더 차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까?

34 韓貞姬, 「나에 대해서(私のこと)」, 『어머니들의 문집(オモニたちの文集)』, 1984. (자료집 1/32-33). (원고용지에 쓰여짐). (원문은 일본어).

35 위의 글, 36쪽.

36 김우자, 앞의 글, 110쪽.

이 점에서 김우자의 마이크로 어그레션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참고가 된다. 2000년대에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 발화에 대항하는 활동을 벌이다 심한 인신 공격을 받게 된 리신혜씨는,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드물게 재판을 통해 복합차별로서 인정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재판 과정 중에 가해자 중 한 명이 혐오 발화를 했던 이유로 “여자니까 했다”고 증언한 것은 의미심장하다.<sup>37</sup> 리신혜씨에게 가해진 혐오발화는 표면적으로는 민족차별에만 원인이 있다고 여겨졌지만, 감춰진 원인으로 공격에 취약한 ‘여성’이라는 점이 공격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김우자는 공격당하기 쉽고, 취약하고(vulnerability), 비난받기 쉽다는 “위치 자체”가 “공격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족차별 속에서 설사 후경화되거나 보이지 않더라도, ‘여성’이라는 위치가 복합차별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이야기 한다.<sup>38</sup>

‘여성’이라는 취약한 위치 자체가, 혐오 범죄는 물론이고 마이크로 어그레션 등의 광범위한 인종주의적 차별과 공격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재일조선여성의 문해교육 경험과 관련된 텍스트를 새롭게 읽게 한다. 즉 젠더차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텍스트에서도 젠더차별의 징후를 읽는 것(반대로 민족차별이 드러나지 않은 텍스트에서도 민족차별의 징후를 읽는 것)은 재일조선여성의 생애사적 특성을 가진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이 점을 고려하며 류해경의 글을 읽으면, 민족차별 속 젠더차별의 징후들이 읽힌다.

훗카이도에서 태어난 류해경은 세 살 때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면서 어머니와 둘이서 가난한 생활을 하며 학교에 다니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심한 인종차별을 당한다.<sup>39</sup> “남자애들도 여자애들 합세해서 다가와서는 ‘마늘 냄새나, 저리가 조선인, 키다리 조선인’이라고 놀리고, 도망가면 쫓아와서까지 놀렸”고 소풍 중에 어머니가 길에 보이면 “저게 해경이 엄마야, 조선아줌마”라고 놀리기까지 하여 큰 상처가 되었다고 토로한다.<sup>40</sup> 이 글에는 류해경이 당하는 인종차별이 ‘여

37 위의 글, 108쪽.

38 위의 글, 109쪽.

39 柳海慶, 「학교에 가고 싶었다(学校へ行きたかった)」, 『어머니들의 문집(オモニたちの文集)』, 1984, 61-71頁(자료집1/48쪽). (원문은 일본어).

40 위의 글, 50쪽.

성'이기 때문에 가해지는 것이라고 할만한 결정적 단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그녀를 쫓아다니면서까지 놀리고 공격하고 그녀의 어머니를 '조선 아줌마'라고 지칭하며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류해경이 어리고, 조선인이고, 여성이며, 어머니만이 있다는 취약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임을 추측하게 된다. 류해경은 결국 민족(인종)차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글을 모른다는 콤플렉스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는 마이너 필링스를 내면화한 상태를 야기한다.

뭔가 쓸 게 있으면 남편에게 써 달라고 갑니다만, 그래도 구청이라든가 은행, 그 밖의 곳에 갈 때 '뭔가 쓰세요'라고 할까봐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적는 용지를 내밀면 더욱 가슴이 두방망이질 쳐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 저는 콤플렉스 덩어리입니다. / 저는 어른이 된 뒤에도, 과거의 어린애가 되어 가방을 매고 학교에 가는 꿈을 자주 꿀 적이 있습니다. / 그 꿈 속의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sup>41</sup>

복합차별이 어떤 트라우마로 남는지, 일상적인 마이크로 어그레션을 포함한 혐오발언이 마이너 필링스를 어떻게 내면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류해경은 한국이 식민지배로 피해를 입은 쪽인데, 왜 차별받아야 하는가라고 자문하지만, 그럼에도 차별 받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았던 시절을 토로한다. “옛날부터 가난한 나라여서, 아님 말이 어색해서인가, 나는 왜왜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한다<sup>42</sup> 류해경에게 문해교육은 민족, 여성, 빈곤이 뒤엉킨 복합차별로 인해 갖게 된 마이너 필링스, 즉 콤플렉스 덩어리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자, 그 복합차별을 공론장을 향해 고발-공표하고 스스로를 문해교육과 글쓰기를 욕망하는 자리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로, 문해교육의 경험을 생애사적으로 쓴 글들은 기존의 거대 역사로 환원되지 않는 재일조선여성의 연대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깊다. 재일조선 여성들이 문해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기록한 글들은 문해교육을 받은 시기에

41 위의 글, 54-55쪽.

42 위의 글, 53쪽.

쓰여질 뿐 아니라, 내용은 생애 전반을 되돌아 보는 경우가 많아, 거대 역사 구분  
에 따른 연대기와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제일조선여성의 자기  
서사공통장텍스트는 그녀들이 경험한 독특한 연대기를 가시화한다고도 할 수 한  
다. 제일조선여성의 생애사적 글에는 식민지기로부터의 해방, 한국전쟁 등의 굵  
직굵직한 역사가 언급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녀들의 글은 이러한 굵직한 역사적  
사건으로 여성의 삶이 어떻게 굴절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다. 출생-결혼-출산-육아 혹은 출생-결혼-남편의 폭력과 바람-사별  
로 이어지는 반복적 시간 속에, 태평양 전쟁, 해방, 한국전쟁 등이 사소한 일처럼  
끼어든다. 즉 그녀들의 생애가 거대 역사에 기록 되어지길 요청한다기보다, 오히  
려 그녀들의 생애 속에 거대 역사가 드문드문 기입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야간 중학교 문집『문자를 움켜쥐다(文字  
をつかむ)』에 수록된 작품들이다.<sup>43</sup> 그 중에도 태평양 전쟁, 1945년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이 비교적 명확히 언급된 작문으로 량정봉(梁丁鳳)의 「無題」를 들 수 있  
다.<sup>44</sup> 량정봉은 조선 제주 출신으로 21살이 되던 해에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오는  
데, 그 이후의 삶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살림을 유지하는 것이 교차되면서 쓰여  
있다.

내가 22살 때 가장 첫째인 장남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 한채 반의  
넓이인데 45엔의 집이 있어서 남편의 회사에서 빚을 내서 샀습니다. 그  
때로부터 제가 24살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빚은 제가 부  
업을 하면서 갚았습니다. 또한 세번째 여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애는 죽  
었습니다. 또한 네번째 내가 28살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으로 옷감 판매를 하는 사람이 집을 팔 테니 사라고 말해주었

43 宋惠媛, 前掲, 344頁. 자료집 편집자인 송혜원은 야간 중학교 문집『문자를 움켜쥐다(文字をつかむ)』의 수록작품은 그 필적이 모두 같다는 점에서, 각 작품을 한 사람이 옮겨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추후 문집의 편집과정에서의 변개양상에 대한 분석을 보충할 계획이다.

44 梁丁鳳, 「無題」, 『文字をつかむ』 2호, 1979.3, 35-43頁. (자료집2/336-344) (원문은 일본어).

습니다.<sup>45</sup>

재일조선여성의 생애는 가사 및 출산을 주축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태평양 전쟁과 해방과 같은 역사적 거대 사건들은 그녀들의 가사 및 출산에 대한 서술 속에 녹아 있다. 량정봉의 51년간 연대기는, 일본생활이 자신에게 남긴 것은 병밖에 없지만, 야간 중학교에서 글을 배우게 되어 행복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가난한 출생-고생스런 결혼생활-출산육아의 고통-가사와 경제적 어려움-야간중학교의 기쁨’이라는 패턴은 『문자를 움켜쥐다』의 다른 작품에서도 선명하게 반복된다.<sup>46</sup> 그중에서도 그녀들의 패턴화된 연대기 속에 역사적 거대 사건이 마치 별 것 아닌 것처럼 삽입되는 양상은 아래 두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1년에 전쟁이 시작되어 징용령에 잡히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남편은 놀기만하고 첩을 두고 돌아오면 폭력을 휘두르고 나는 3명의 아이들을 안고 울며 돌보는 사이 전쟁이 끝나고, 중학교 3년의 차남은 급성맹장염으로 죽고….<sup>47</sup>

8월 15일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모두 기뻐하고 있었지만 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나는 아이들 6명과 할머니 1명을 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sup>48</sup>

첫 번째 인용에서는 아이들 3명을 돌보는 과정에 마치 대수롭지 않은 것인 양 전쟁이 언급되고 있으며, 두 번째 인용에서는 해방이 와도 여섯 아이의 육아와 늙은

---

45 梁丁鳳, 前掲, 37-38頁. (자료집2/338-339頁).

46 이러한 패턴의 반복은 다음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이 각주에 인용된 모든 글은 원문이 일본어.) 朴渭今, 「無題」, 『文字をつかむ』 2号, 1979.3, 53-61頁. (자료집2/345-353쪽).; 姜末仙, 「無題」, 『文字をつかむ』 2号, 1979.3, 81-86頁. (자료집2/354-359쪽).; 下莫来, 「無題」, 『文字をつかむ』 2号, 1979.3, 67-77頁. (자료집2/360-370쪽); 吳平寿 「道」, 『オモ二たちの文集』, 1984, 87-91頁. (자료집2/389-393쪽).; 許弼順, 「無題」, 『文字をつかむ』 2号, 1979.3, 87-103頁. (자료집2/371-387쪽).

47 姜末仙, 앞의 글, 85-86頁. (자료집2/358-359쪽).

48 許弼順, 앞의 글, 102頁.(자료집2/383쪽).

시부모 돌봄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이처럼, 전쟁에도 해방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결혼-출산-육아-생계라는 고통의 시간이 다른 시간으로 이행하는 순간이 바로 문해교육이다. 박위금(朴渭今)은 “꿈에 그리던 학교의 문으로 들어가, 문자나 말을 배우게 되”었고,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감사의 기분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한다.<sup>49</sup> 변막래(卞莫來)는 58년간 무학이었는데,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야간중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게 되”었다고 말한다.<sup>50</sup> 오평수(吳平壽)는 「길(道)」에서 “지금은 어머니들과 공부할 수 있어서 자신의 일을 쓰는 것은 기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한다.<sup>51</sup> 강말선(姜末仙)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여자는 학교에 가면 건방져서 안된다”고 하여 학교를 가지 못했지만<sup>52</sup>, 현재는 조선 가나로 일기를 쓰게 되고, “고생도 걱정도 끝났습니다.”라고 말한다.<sup>53</sup>

문해 능력의 획득과 작문의 기쁨을 가장 열정적으로 쓴 것은 허필순(許弼順)이다. 그녀는 야간 중학교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워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이며, 글 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쓴다.

이 중학교는 즐거워서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매일 즐거워서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미 5년이 됩니다. 이 5년간은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5년이 되었습니다. (...) 매일매일 야간 중학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문자를 쓸 수 있게 되고, 문자가 읽을 수 있게 되고, 덧셈 뺄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나에게는 무엇보다 기쁜 것입니다. 기쁘다라고 쓰면 단지 그것 만인 것 같습니다만, 이 말 속에는 나의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 속의 기분, 슬픔이나 고통이나 미움이나 기쁨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의 기쁨입니다. 이

49 박위금, 앞의 글, 60-61頁. (자료집2/ 352-353쪽).

50 卞莫來, 앞의 글, 76頁. (자료집2/369쪽).

51 吳平壽, 앞의 글, 91頁. (자료집2/393쪽).

52 姜末仙, 앞의 글, 81頁. (자료집2/354쪽).

53 위의 글, 81, 86頁. (자료집2/354쪽, 359쪽).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요.<sup>54</sup>

글자를 배우고 작문을 하면서 그/녀들은, 58년 만에, 51년 만에 겨우 그/녀/들의 시간이 흘러가고,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된다고 느낀다. 이는 대문자 역사의 시간과 별개로 변화에 대한 희망도 없이 차별과 배제의 시간을 살아 온 재일조선여성의 삶 속에 기입된 또 하나의 연대기—문해능력의 획득과 글쓰기를 통한 공감과 연결로 만들어진 공통성의 시간—인 것이다.

재일조선여성의 새로운 연대기는 세대를 달리하여 이어지기도 한다. 가정주부이자 성인 학교의 강사를 하고 있는 정춘자는 문맹으로 평생을 사셨던 어머니를 애뜻하게 회상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조선의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며,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채 세상을 버린 어머니의 뒤통까지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마음”을 먹는다.<sup>55</sup> 그녀는 자신의 수업에서 “마디 굵은 손에 연필을 쥐고 우리 글을 하나하나 써 가는 주름진 어머니들의 이마에서도 저는 저의 어머니와 우리의 많은 어머니들의 지난날을 엿보게 되며 가슴 속에서 이따금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름”을 느낀다고 말한다.<sup>56</sup> 비록 그녀들의 이러한 표현들이 총련 조직의 정형화된 수사와 닮아있다고 할지라도, 이 글쓰기의 순간은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나 마이너 필링으로부터 벗어나 그/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연대기와 그 연대기의 계승을 담은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대명사화된 ‘어머니/야모니’의 양가적 의미

#### 3.1 대명사화된 호칭, ‘어머니/야모니’

문해 능력을 습득하고자 하는 재일조선여성의 욕망, 즉 ‘욕망을 원할 욕망’의 획득은 두 가지 벡터 사이를 왕복 운동한다. 하나는 그녀들을 둘러싼 기존 공동체(가족, 학교, 민족 조직, 사회,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 충실하려는 인정욕망이다.

54 許弼順, 앞의 글, 101-103쪽. (자료집2/385-387쪽).

55 정춘자(가정주부, 성인 학교 강사), 「한 많게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朝鮮新報』, 1965. 3.6., 4頁. (자료집2/306쪽)

56 위의 글, 4頁.

다른 하나는 기존의 관계에서 해방된 새로운 공통성의 모색이다. 이 갈등하는 두 가지 벡터를 여기서는 재일조선여성을 지칭하는 대명사화되었던 ‘어머니’라는 말의 복합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려고 한다.

‘어머니’라는 말은 재일조선여성들이 쓴 글에서 독특한 표기법으로 나타나는 번역불가능한 말이다. 이 말은 한글인 ‘어머니’와 일본어로 음독한 ‘오모니(オモニ)’, 이 두 가지로 표기된다. 일본어로 쓰인 글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만은 한글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어에서 어머니는 ‘お母さん、母親、ママ’등으로 표현되므로, ‘어머니/オモニ’는 재일조선인의 경험을 담고 있는 말이며, 발음이 같더라도 한국어의 ‘어머니’와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란 가족 관계의 호칭이자 그러한 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다. 그러나 문해교육과 관련된 글에서 ‘어머니/オモニ’는 결혼하거나 나이 든 여성에 대한 호칭으로 일반명사화되어 쓰인다. 즉 나이 든 모든 여성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쓰이는 것이다. 문해교육을 하는 학교 이름도 ‘성인 학교’ 이거나 ‘어머니 학교’이며, 그녀들의 글을 묶은 책 제목도 『어머니들 문집』이다. 문해교육을 권하러 온 여맹의 조직원들은 교육 대상자들을 모두 ‘어머니/オモニ’라고 부르며, 재일조선여성들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도 다른 여성을 지칭할 때에도 ‘어머니/オモニ’라는 말을 복수형으로 사용한다.

다음 글 원문의 문면을 보면, 원고지 한 칸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일본어로 쓰여 있는데, 유독 ‘어머니’와 ‘아버지’만은 한글로 쓰여 있어서 눈길을 끈다. 비교를 위해 원문과 번역문을 올리면 아래와 같다.

[원문] 私は、어머니学校へ通っている六十一オの어머니です。娘時代に私の아버지는、「女は自分の名前が書けるだけでいい。」とって、男にだけ、学問をさせました。(…) 어머니学校へ通って五年半になりました。(…) 어머니学校へ来るまでは、どこかへ行くのも不安でした。(…) 어머니学校へ来るのが楽しみです。

[번역문] 저는 어머니 학교에 다니고 있는 61살 어머니입니다. 딸내미 시절에 저의 아버지는 ‘여자는 자기 이름만 쓸 수 있으면 된다’고 하며 남자만 학문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학교에 다닌 지 오년 반이 되었



습니다. (...) 어머니 학교에 오기 전에는 어딘가에 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 어머니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sup>57</sup>(밑줄과 번역은 필자, 문면을 보이기 위해 원문을 병기함.)

1990년대 야간 중학교에서 문해 교육을 받은 재일여성들에 대한 구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서아귀는 “소수자 여성”은 “그가 속한 민족·인종 집단이 주류 사회에서 억압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별의 피난처로서 민족 커뮤니티 및 가족이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이 크”며, 따라서 “그 속에 있는 성별 규범과 성별 분업의 구속을 받기” 쉽고, “‘여성’이라는 주체보다 재일조선인의 ‘어머니’ 혹은 ‘아내’라는 가족 여성 역할이 운동의 전면에 나올 때가 많”다고 쓴다.<sup>58</sup> ‘어머니/아모니’라는 사적인 호칭이 재일조선여성의 문해교육 속에서 대명사화되어 모든 결혼하거나 나이 든 여성을 지칭하고 호칭하는 말로 쓰이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복합 차별 속에서 재일여성에게 어떠한 규정된 역할이 기대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소수자 민족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피난처나 안식처로 신화화된 ‘어머니/아모니’의 이미지는, 당사자보다 딸에 의해서 발화될 때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윤영자의 「어머니」에는 재일조선인 조직 활동에만 열심인 아버지를 대신해 더운 날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주를 끓여 밀주를 만들고 돼지를 키우고 일곱 명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움과 감사와 함께 형상화되어 있다.<sup>59</sup> 동시에, 재일조선인인 어머니는 “언젠가 다시 조국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사는 존재, 즉 조국, 고향을 체현한 존재로 부각된다.<sup>60</sup> 하응례는 「어머니와 내 고향」에서 자신은 다섯 살에 고향을 떠나와 기억이 없지만 “고향 산천을 환희 눈앞에 그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얻은 지식”을 통해서 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와 같이 해 주었”

57 玄五生, 앞의 글, 3-6쪽. (자료집1/27-30쪽).

58 서아귀, 유라주 역, 『할머니들의 야간중학교』, 오월의봄, 2019, 35쪽. (일본어본은 徐阿貴, 『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の形成』, 御茶の水書房, 2012).

59 윤영자, 「어머니」, 『学生旗』七号, 1954.7., 46쪽(고1, 고2 작품집에서). (자료집2/291쪽).

60 위의 글, 46쪽(자료집2/291쪽).

고, “눈을 감으면 아름다운 고향 마을의 정경이 나의 뇌리에 생생이 떠오르곤” 한다는 것이다.<sup>61</sup> 이처럼 딸들의 글에서 ‘어머니/ㅁㄴㄹ’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상실한 조국과 고향의 상징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발언 속에서 ‘어머니/ㅁㄴㄹ’가 담고 있는 의미는 훨씬 복잡적이다. 그 호칭은 가정과 가족 안으로 한정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사회관계 속에서의 역할과 위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의미를 띤다. 예를 들어 재일조선여성들은 문해교육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어머니/ㅁㄴㄹ’라고 지칭하고 상대방을 부를 때도 어머니라는 호칭을 쓴다. 이때 ‘어머니/ㅁㄴㄹ’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발현된 욕망 또한 다채롭다. ‘어머니/ㅁㄴㄹ’들 사이의 관계를 발판으로 새로운 관계나 공통성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모성’에 대한 다각적 의미화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즉 억압과 폭력을 견디도록 신화화된 모성은 비판하되, 돌봄의 한 형태로서 모성의 경험을 새롭게 의제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생리적/육체적인 것으로서의 모성(maternity)”, “사회의 구성물이자 제도로서의 모성(motherhood)”, 그리고 “여성이 실제 수행하는 경험으로서의 모성(mothering)”을 구별한다.<sup>62</sup> 그리고 마더링(mothering)을 통해 경험된 돌봄의 가치를, 기존의 권위적이고 남성화된 관계를 해체할 수 있는 잠재성을 띤 것으로 해석한다.<sup>63</sup> 이러한 틀에서 보면,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에 나타나 있는 ‘어머니/ㅁㄴㄹ’의 두 벡터—인정욕망으로 귀결되는 ‘어머니/ㅁㄴㄹ’와 자율적 공통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어머니/ㅁㄴㄹ’—사이의 다이내믹한 갈등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젠더화된 역할로의 포섭과 새로운 공통성의 형성, 이 두 벡터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양쪽을 무 자르듯 나눌 수는 없다. 특히 재일조선여성은 민족조직을 통해 문해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문해교육을 행하는 조직이나 단체에

61 하응례, 「어머니와 내 고향」(녀맹 일군), 『朝鮮新報』, 1965.2.20. 4頁. (자료집2/303쪽).

62 최이숙, 「모성에 대한 전유와 돌봄의 의제화」, 『석당논총』 제77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0, 42쪽.

63 위의 글, 42쪽.

서 추구하고 사용하는 전형적 표현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녀들이 쓰는 글이 얼마나 그녀들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긴 어렵다. 예를 들어 “조국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공화국 공민 된 긍지와 영예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거나,<sup>64</sup> “성인 학교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 우리를 이처럼 떳떳이 살게 해 주신 김일성 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들이 그렇다.<sup>65</sup>

그런데 이런 전형적인 표현이 어머니의 역할과 맞물릴 때 정해진 공동체 내부에서나마 그 의미의 변형이 일어나기도 한다. “어구를 약간 수정하였음-편집국”이라고 부기되어 있는 글에서 전쌍순은 “어머니들의 야학”에 열심히 다니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쓴다.<sup>66</sup>

나의 아들이 학교에 가게 되었다. (...) 아이들한테 어머니라는 권리로서만 ‘공부를 하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여라’고 말을 하였지 옳은 어머니라는 자각은 없었다. (...)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머니가 배워야 되겠다. (...) 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조선 글과 말도 모른다’는 것이 들리지 않도록 어서 배워서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공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같이 놀기도 하는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어머니 학교로 부지런히 공부하러 갔다. (...) 여러 어머니들도 제 2차 어머니 학교가 시작될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여 자미 있게 배워 봅시다<sup>67</sup>

이처럼 문해교육의 이유는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것이며, 그 ‘어머니’가 포괄하는 관계는 ‘가정’에서 시작하여 다층적 공동체와 관련된다.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어머니’인데, 재일민족조직이나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어머니라는 권

64 김정순, 앞의 글, 4쪽. (자료집1/15쪽).

65 문옥체, 앞의 글, 4쪽. (자료집1/13쪽).

66 전쌍순(姬路·網干어머니회 국어 강습회 수업생), 「조선 여성 답게 어머니 답게-꾸준히 배우니 이쯤 쓸 수 있었다」, 『朝鮮民報』, 1957.11.30., 4쪽. (자료집1/7쪽).

67 위의 글, 4쪽. (자료집1/7쪽).

리'나 '좋은 어머니' '옳은 어머니'가 된다. 또한 '어머니 학교'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여러 어머니'로 연결된다. 이때 각 여성 개인의 이름은 지워지고 기존 공동체의 규범적 역할을 재생산하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학교'의 다른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공통성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 3.2 '어머니/야모니'의 양가적 의미: 규범화된 인정욕망 vs. 새로운 공통장의 발명

이 '어머니/야모니'의 의미는 어떻게 두 벡터 사이를 왕복 운동할까? 먼저 인정욕망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보자. 리정애는 “집안 처리도 잘 못 하면서 무슨 글 배우기냐고 남편의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남편 모르게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였” 으며 그럼에도 남편은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었고, “그럴수록 나는 더욱 집안을 알뜰히 꾸리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였”다고 쓴다.<sup>68</sup> 글자를 배우기 위해 슈퍼우먼이 되어야 했던 그녀가 학교 통신문을 술술 읽자 남편의 인정이 돌아오고, 녀 성분회에 참여하고 동포애도 커졌다고 글이 끝나고 있다. 그녀의 변화를 기존 공동체가 부여한 '어머니'라는 의미로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녀의 노력은 “착한 주부로, 안해로, 어머니”가 되기 위한 인정욕망으로 귀결되는 측면이 강하다.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나 그로 인해 심화된 마이너 필링스는 관계적이고 맥락적이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가부장제적 관계 속에서 인정을 얻거나 젠더화된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침묵하거나 순종하려는 욕망을 갖게 되는 것도, '어머니/야모니'의 의미를 새로운 관계로 변형시키는 것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문해교육을 원하는 여성들 사이의 깊은 공감대, 공부할 장소와 여건을 자발적으로 만들고 그녀들 사이의 공통성을 형성해 가는 경우도 있다. 르포르타주 「생활과 투쟁의 기록:우리들은 이렇게 문자를 배웠다」는<sup>69</sup> 글자를 배울 곳이

68 리정애(總連 東京 板橋 지부 北町 분회), 「수기: 성인학교 졸업을 앞두고」, 『朝鮮新報』, 1964.4.20., 4쪽. (자료집 1/18쪽) 이하 한 단락은 모두 같은 페이지의 인용임.

69 金鐘惠, 高京子, 앞의 글, 20 - 23頁. (자료집 1/3-6쪽).

없었던 여성들 사이의 깊은 공감에서 시작된다. 그녀들은 “제각각 뭔가 가슴에 딱 막힌 덩어리를 내뱉는 듯한 기분으로 이야기 했”으며 “어떤 무리를 해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글자를 배우자!”는 것이 그녀들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절절한 소망”이었음을 확인하고, 학습회를 시작한다. 이들 5명은 연령도 29살부터 37-8세까지 다양하고, 자녀를 두 명에서 다섯 명까지 지닌 사람들이 모인 것이어서 하루의 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들었지만, 서로를 독려하고 선생님에게 줄 수강료를 모아 문해교육을 받을 자신들의 장소를 만든다.<sup>70</sup> 또 다른 예로 김정순의 글은, 비록 총련 조직 내부지만, 수강생끼리 자발적으로 문자교육의 장소와 선생님을 구하고, 점차 회원을 늘려가는 경우를 보여준다.<sup>71</sup> 이러한 공감은, 그녀들의 욕망을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영역으로 회수하지 않으며, 그녀들이 받았던 차별과 배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새로운 관계로 확장시킨다.

가슴에 딱 막혀 있는 덩어리의 느낌, 이것은 복합차별을 받아온 그녀들의 마이너 필링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글 속에서 자신들이 지닌 마이너 필링스에 대한 강렬한 상호 공감은 그녀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게 하는 힘이 된다. 여자는 교육이 필요 없다는 식의 가부장적 편견을 바탕으로 한 마이크로 어그레션에 노출되어 있던 그녀들은, 여태까지 발화될 수 없는 것, 혹은 욕망해선 안 되는 것으로 치부되었던 문해교육과 글쓰기에 대한 욕망, 다시 말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을, 마이너 필링스에 대한 상호 공감을 통해 확인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서 표출해 갔다.<sup>72</sup>

이렇게 문자교육에서 시작된 모임은 그녀들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로 나아간다. 그녀들은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苦しみの根源はどこに?)라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민족차별의 원인을 찾아간다.<sup>73</sup> 『해방신문』을 읽으면서 “알려 고도 하지 않았던” 민족차별의 이유, 최저 생활보호를 받기 위해 민족조직이 필

70 위의 글, 21頁. (자료집1/4쪽).

71 김정순, 앞의 글, 4쪽. (자료집1/15쪽).

72 최이숙, 앞의 글, 49쪽. 시기와 사안은 다르지만, 문해 교육을 받고자 자구책을 마련하는 재일여성들의 공감과 연결은,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모임을 결성하게 된 순간과 매우 닮아 있다.

73 金鐘惠·高京子, 앞의 글, 21頁. (자료집1/4쪽).

요한 이유 등을 이해하게 되고 공부란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함께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sup>74</sup>

세계에 대한 이해의 확장은 곧 관계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즉 ‘어머니’에게 부여된 전통적 역할과는 다른 형태의 돌봄의 방식이 모색된다. 가정 상황이나 가사일로 공부모임에 잘 나오지 못하는 멤버가 있으면 그 이유를 회의를 통해서 찾고 함께 계속할 방법을 마련하고, 함께 문화제나 대회에 참여하고, 여성동맹의 회비를 위한 ‘캠페인’을 하며, 일본인과도 친분을 쌓으면서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무엇보다 그녀들이 스스로의 변화를 긍정하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학습회가 이렇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는 나 자신도 예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며 그 변화가 즐거워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토로한다.<sup>75</sup> 그녀들 사이의 공감을 통한 장소 만들기, 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는 회의와 돌봄의 방식, 세계에 대한 인식과 관계의 확장, 변화에 대한 긍정 등은 그녀들을 ‘어머니’라는 기존 공동체가 부여한 역할에 묶어 두지 않는다. 이는 비단 총련 조직 밖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김정순의 경우도 ‘성인학교’의 인원이 늘어나고 문해능력의 기쁨을 느끼면서 녀맹 부회장이거나 고문 등으로 활약하게 된 멤버들의 변화를 적고 있다.<sup>76</sup>

이처럼, 글쓰기를 향한 여성들의 욕망은 기존 공동체로의 인정욕망과 새로운 공통성의 창조라는 두 벡터 사이를 왕복 운동하며 요동친다. 그러나 이 왕복운동은 복합차별을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겪어 온 존재들이 어떻게 마이너 필링스를 내면화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공통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그재그의 궤적이기도 하다. 마이너 필링스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감정들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이크로 어그레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면서 정체성의 형성에 내밀하게 작용하는 감정들이다. 따라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고 벗어났다고 생각해도 매번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이너 필링스를 자각하고 서로의 그 감정에 공감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공통성을 만드는 스프링 보드가 되

---

74 위의 글, 22-23頁. (자료집1/5-6쪽).

75 위의 글, 23頁. (자료집1/6쪽).

76 김정순, 앞의 글, 4쪽. (자료집1/15쪽).

기도 한다.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에 나타난 ‘어머니/オモニ’의 양가성이 보여주듯이, 억압과 저항의 관계는 복합차별을 받은 존재들 사이에서 훨씬 더 뒤엉켜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 억압이 더 심각하다거나 특정 활동이 더 진보적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연결점을 찾기 위한 개념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지 모른다.<sup>77</sup> 이러한 점에서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는 ‘어머니/オモニ’라는 말로 표현되는 두 가지 욕망의 벡터—기존 관계 속 인정욕망과 새로운 공통성의 형성욕망—가 끊임없이 갈등하며 왕복운동을 함으로써, 그 운동 속에서 새로운 공통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와 자원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 4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의 성찰성: 피해와 가해 사이에서

재일조선여성의 문해교육을 둘러싼 글쓰기에는 생애사적 패턴을 통해 그녀들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일상적으로 받아 온 복합차별의 원인을 인식하는 궤적이 나타나 있다. 이는 일상적인 마이크로 어그레션으로 내면화된 마이너 필링스에서 벗어나, 글쓰기를 욕망할 수 있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정립시킬 수 있는 내면적 동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주며 그녀들 사이의 새로운 연대기를 모색하게 해 준다. 또한 문해교육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여성들 사이의 공감, 연결, 새로운 관계로의 확장은 기존의 가부장제적 관계 속에서 인정받으려는 욕망과 여성들 사이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려는 욕망 사이를 연동하면서, 재일조선여성들 사이의 새로운 공통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4컷 만화 「어머니 교육」 속 ‘어머니/オモニ’의 작동을 살펴보자.<sup>78</sup> 이 만화는 ‘어머니/オモニ’라는 호칭을 둘러싼 에피소드를 통해, 문해교육 과정이 재일조선여성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성과 공통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

77 패트리샤 힐 콜린스 지음, 주해연·박미선 역, 『흑인페미니즘 사상』, 여이연, 1998, 468쪽.

78 「어머니 교육(オモニ教育)」, 『朝鮮時報』 제165호, 1961.6.17. (자료집 1/2쪽). (원문은 일본어)

어서 인상적이다. 만화에 등장하는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불렸음에도 답하지 못하다가 뒤에 앉은 여성이 “어머니 이름 불러요(の名前を読んでるねよ)”하자 겨우 대답을 한다. 왜냐하면 “태어나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보았(生れてはじめて自分の名前を呼ばれた)”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문해교육을 통해 만난 뒷 자리의 그녀와의 관계이며, 그 관계에서 그녀는 ‘신춘희(申春嬭)’가 아니라 ‘어머니/オモニ’로 불려진다. 그러나 이때 ‘어머니/オモニ’라는 말은 민족 공동체에서 신화화되고 정형화된 역할을 부여받거나 가부장제 속에서 젠더화된 ‘어머니’의 역할과는 또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문해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서로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어머니/オモニ’라는 말은, 복합차별로 내면화하게 된 마이너 필링스에 대한 깊은 공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며, “어머니 이름 불러요”라는 말처럼 각자의 독자적 이름을 자각시켜주기 위한 호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글쓰기를 위해 문해교육을 받는 장소에 모인 ‘어머니들’의 욕망은 끊임 없이 기존 공동체의 역할규범과 여성들간의 새로운 공통성, 이 둘 사이에서 요동한다. 그리고 이 요동 속에서 ‘어머니/オモニ’라는 말은, 여태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어머니들’의 공통성과 표현을 만들어낼 잠재성을 담고 발화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재일조선여성의 마이너 필링스의 극복과 새로운 공통성의 구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서 끝맺고자 한다. 일상적인 마이크로 어





그레션에 노출되거나 마이너 필링스를 내면화하는 등 재일조선여성의 ‘피해’의 측면을 이야기할 때, 이를 접하는 한국 국적의 여성들은 재일조선여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복합차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위치에 스스로를 두게 되는 경향이 있다. 식민지배의 경험을 지닌 민족이라는 경험을 기반으로 재일조선여성의 위치를 인식하고 한국 여성의 위치와 동일시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합차별은 하나의 차별이 전경화될 때 다른 하나의 차별이 후경화되는 식으로 비가시화된다. 따라서 복합차별의 뒤엉킴 속에서 피해와 가해의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논의는 ‘가해자도 피해자다’라는 식의 면죄부를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피해자도 구조적으로 언젠가 가해의 위치에 놓여질 수 있다는 피해자의 가해성에 대한 성찰로 나아갈 때 비로소 피해에 대한 이해도 타자에 대한 공감도 깊어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담론장에서 재일조선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서야 이뤄지고 있다는 점만을 보아도, 재일조선여성과 한국여성 사이에는 위계와 간극이 존재하며 존재해 왔다. 더구나 ‘한국여성’의 위치는 현재 한국에 체재하면서 인종차별, 젠더차별, 계급차별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는 난민여성·이주여성과의 관계에서 볼 때, 피해의 자리가 아니라 가해의 자리로 전환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예멘난민이 제주도에 체류했을 때, 일부 여성들은 ‘난민이 들어오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슬람 포비아가 뒤섞인 혐오발언을 하며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배경에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의 현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불안 속에서 발화한 난민에 대한 혐오발언의 결과, 난민은 남성화되었고, 난민 여성은 더욱 비가시화되었을 뿐 아니라, 난민에 대한 혐오 발화의 핑계로써 여성의 취약성이 이용당했다. 이는 주디스 버틀러가 ‘인도주의적 통치성’이라고 명명하면서 저항과 상처조차도 통치에 활용되는 작금의 상황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sup>79</sup>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재일조선여성의 자기서사공통장텍스트는 현재 한국사회의 젠더차별, 민족(인종)차별, 젠더차별의 양상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

79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김웅산 역, 『박탈』, 자음과모음, 2016, 185쪽.

이다.

이처럼 제일조선여성을 비롯한 아시아 유민 여성이 복합차별로부터 벗어난 관계와 공통성, 그리고 새로운 연대기를 모색하는 것은, 절실한 현재적 과제다. 이때 제일조선여성이 쓴 문해교육의 경험을 담은 글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지 한국사회의 성찰성을 위한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일조선여성들이 젠더화된 역할로의 포섭과 새로운 공통성의 형성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그려낸 궤적들은, 어떻게 전지구의 ‘아시아 유민 여성’이 마이크로 어그레션과 마이너 필링스를 극복하고, 공감과 연결과 사회적 확장을 이뤄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원이 된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① 자료집 및 문집

宋惠媛 편저, 『在日朝鮮女性作品集: 一九四五~八四. 1』, 綠蔭書房, 2014.

\_\_\_\_\_, 『在日朝鮮女性作品集: 一九四五~八四. 2』, 綠蔭書房, 2014.

#### ② 신문 및 잡지 기사 (한국어)

김정순(總連 神奈川縣 川崎 지부 群電前 성인 학교 수강생), 「수기: 문맹에서 벗어난 기쁨」 『朝鮮新報』, 1965.4.29., 4쪽.

리정애(總連 東京 板橋 지부 北町 분회), 「수기: 성인학교 졸업을 앞두고」, 『朝鮮新報』, 1964.4.20., 4쪽.

문옥체(총련 고꼬 다이또 지부 구루마사까 성인 학교 수강생), 「성인 학교에서 글을 배워 처음으로 쓴 작문: 밝고 맑은 세상은 꿈 같은 세상」, 『朝鮮新報』, 1964.12.5., 4쪽.

영자, 「어머니」, 『學生旗』 七号, 1954.7., 46-47쪽(고1, 고2 작품집에서).

전쌍순(姫路·網干어머니회 국어 강습회 수업생), 「조선 여성 답게 어머니 답게-꾸준히 배우니 이쯤 쓸 수 있었다」, 『朝鮮民報』, 1957.11.30., 4쪽.

정춘자(가정주부, 성인 학교 강사), 「한 많게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朝鮮新報』,

1965.3.6., 4쪽.

하응례(녀맹 일군), 「어머니와 내 고향」, 『朝鮮新報』, 1965.2.20., 4쪽.

### ③ 신문 및 잡지 기사 (외국어)

姜末仙, 「無題」『文字をつかむ』, 2号, 1979.3. 81-86頁.

金鐘惠·高京子, 「体験記・ルピルターージュ:生活と斗いの記録:私たちはこのようにして文字を習った」, 『新しい朝鮮』 2호, 1954.2, 20-23頁.

柳海慶, 「学校へ行きたかった」, 『オモニたちの文集』, 1984, 61-71頁.

朴渭今, 「無題」, 『文字をつかむ』 3호, 1979.3, 53-61頁.

(좌담회) 「半島學生の諸問題を語る」, 『國民文學』, 1942.5-6월 합병호.

梁丁鳳, 「無題」, 『文字をつかむ』 2号, 1979.3, 35-43頁.

呉平寿, 「道」, 『オモニたちの文集』, 1984, 87-91頁.

張赫宙, 「朝鮮の知識人に訴ふ」, 『文藝』, 改造社, 1939.2.

趙玉金, 「夜間中学に学んで」, 『おとなの中学生』, 1982. 71頁.

下莫来, 「無題」『文字をつかむ』 2号, 1979.3, 67-77頁.

韓貞姬, 「私のこと」, 『オモニたちの文集』, 1984, 31-36頁.

許弼順, 「無題」, 『文字をつかむ』 2호, 1979.3, 87-103頁.

### 단행본

#### ① 단행본(한국어)

이한정, 「여성으로서의 생애와 역사」, 박광현·오탈영 편저, 『재일조선인 자기서사의 문화지리』 1, 역락, 2018.

미리내, 양지연 역, 『보통이 아닌 날들』, 사계절, 2019.

스테파니 데구이어 지음, 김승진 역, 『권리를 가질 권리』, 위즈덤하우스, 2019, 23쪽, 34-37쪽.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 역, 『혁명의 영점』, 갈무리, 2013, 237쪽.

오문자·조영순, 최순애 역, 『봉선화, 재일한국인 여성들의 기억』, 선인, 2018.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김웅산 역, 『박탈』, 자음과모음, 2016, 185쪽.

캐시 박 흥, 노시내 역, 『마이너 필링스』, 마티, 2021, 84-85쪽.  
패트리샤 힐 콜린스, 주해연·박미선 역, 『흑인페미니즘 사상』, 여이연, 1998,  
468쪽.

## ② 단행본(외국어)

徐阿貴, 『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の形成』, 御茶の水書房, 2012.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 岩波書店, 2014.  
長谷川貴彦, 『エゴ・ドキュメントの歴史学』, 岩波書店, 2020, 2-5頁.  
Freeman Lauren and Jeanine Weekes Schroer (eds.), *Microaggressions and  
Philosophy*, Routledge, 2020, p.6.

## 논문

### ① 논문(한국어)

김우자, 「재일조선인 여성에 대한 일상적이고 미묘한 차별」, 『동방학지』 제191호,  
2020.6, 87-114쪽.  
송효진·김소영·이인선·한지영, 「한국에서의 난민여성의 삶과 인권」, 『이화젠더  
법학』 제10권 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12, 149-189쪽.  
신지영, 「트랜스내셔널 여성문학의 공백」,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  
학학회, 2019, 87-133쪽.  
\_\_\_\_\_, 「부/재의 언어로(가) 쓰다」, 『사이間SAI』 제27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  
회, 2019, 161-297쪽.  
최이숙, 「모성에 대한 전유와 돌봄의 의제화」, 『석당논총』 제77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0.7, 39-66쪽.

### ② 논문(외국어)

Freeman, Lawren, and Heather Stewart, “Microaggressions in Clinical Med-  
icine,”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Volume 28, Number 4,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December 2018, pp.411-449.  
D.W. Sue, et. al, “Racial Microaggression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Vol. 62, Iss.4, May-June 2007.  
pp.271-286.

## Abstract

Minor Feelings of Zainichi Women and the Pronominalized “Mother”  
: The Literacy Education and Writings of First-Generation Zainichi Women

Shin Jiyong

This paper analyzes the “minor feelings” that Zainichi women had to internalize in colonial and patriarchal systems through an examination of writings by the first generation of Zainichi women, who wrote about their experiences of literacy education. Additionally, I also identify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that helped facilitate ways of “being in the commons” and breaking away from relationships in which the Zainichi women fell into minor feelings.

This analysis focuses on memoirs, diaries, and essays contained in volumes one and two of Collections of Works by Zainichi Women: 1945-84. In these writings, these women display their desires and motivations to learn how to write, the hardships and suffering they experienced in their family lives in the colony, and the feelings they had to confront. In this paper, I define such writings as “communal-autobiographical narratives” that demonstrate the relentless learning processes Zainichi women had to go through in multi-layered relationships. Moreover, I pay attention to the ways that minor feelings were intensified by microaggressions, which were acts of subtle racist violence committed particularly in close and intimate relationships. Further, I attempt to examine how Zainichi women controlled their minor feelings.

First, Zainichi women’s writings vividly describe how they were driven to learn to read and, in turn, write about their lived experiences. Thus, I argue that they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echo documentary writings, or personal life histories. Through these characteristics of life history writing, I analyze how women detached themselves from minor feelings (self-belittlement, self-hatred, shame, and passivity) and become subjects who desire to write. Second, I discuss the dynamic conflicts between ambivalent desires—that is, the desire to gain recognition in existing patriarchal relationships and the desire to create a new autonomous communal society of their own. I examine how the term *ōmōni*, meaning “mother,” was newly contextualized as a word that represents the multi-layered hierarchy Zainichi women belong to and, at the same time,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Zainichi women themselves.

Therefore, based on the communal autobiographical narratives of Zainichi women, this paper is a preliminary attempt to seek new ways of connecting the positions of Zainichi women in Japan with those of other immigrant women of color, all of whom are vulnerable to minor feelings and microaggressions.

In addition, I attempt a short yet critical study of the discrimination some Korean people made against immigrants from Asian countries or other third-world countries. Moreover, I suggest a possible method for eliminating the complexity of discrimination by seeking for commonality or a commons between human beings.

Key Words: Zainichi, Colored Immigrant Women, Microaggression, Minor feelings, Literacy Education, Communal Autobiographical Narrative, Racism, Complex Discrimination, Aversion, Life-history writing, Commonality

본 논문은 2022년 7월 21일에 접수되어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8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